

韓國看護教育의 理念과 內容 및 그 諸問題點에 關하여

서울醫大看護學科 洪 麗 信

오늘날의 專門業者에 對한 敎育은 技術的인것을 떠나서 知識을 重要視하는 方向으로의 움직임을 보인다고 어떤 美國敎育者는 말하고있으며 看護敎育도 例外없이 첫째로 敎育받은 人間의 形成, 둘째로 專門家의 養成이라는 樣相을 엿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韓國에 있어서도 看護敎育은 時代的인 要求에 따라 그 水準을 大學내지 專門學校의 位置로 끌어 올리고 人格의 陶冶, 社會的 文化的인 成長 指導者의 資質의 涵養, 人類社會福祉에 參與할 有能한 醫療業者의 一員으로서 家庭人으로 社會人으로서의 敎育을 그 目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을 찾아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目的들의 밑받침이 되고있는 敎育理念은 分明 한 技術者를 養成한다느니 보다 幅넓은 豊富한 人間性의 形成이 보다 큰 貢獻을 할수 있으리라는 믿음에 立脚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實際로 韓國에 있어서의 看護에 對한 要求는 事情이 다른 歐美的인 것과는 비록 指向하는 終局的目標가

같은 것이라 해도 本質的인 差異가 있는 것이며 어디까지나 專門業者는 그 社會의 必須的인 慾求를 充當할 수 있어야 한다는 點에서 急變하는 社會文物속에서 各己 方向을 못잡고 있는 우리 看護敎育界는 그 理念과 目標를 좀 더 뚜렷하게, 具體的으로 再整理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事實上 끊임없는 外勞의 影響圈內에서 자라온 韓國看護敎育은 實質的으로 韓國特有的 風土와 實情에 適合한 獨自的인 理念의 具現도 보지 못한채 急進하는 醫療界全般의 소용돌이속에서 模倣과 追從의 긴 年輪을 거듭하는 동안 國內的으로는 自身이 설자리를 얻지못해 彷徨하는 異邦人 같이 特殊敎育을 自處하여 數十年의 敎育的 貢獻에도 不拘하고 國家가 制定하는 敎育制度속에 뚜렷한 位置를 차지하지 못하였으며 韓國人的인 素養과 價值觀을 外面한 까닭에 받은 敎育에 相符하는 社會的 地位를 얻지 못하였고 演劇을 잘못하는 學生들은 서투른 人形놀이와 國內에선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器具와 材料

와 商品名과 잘 消化되지 못한 아이
디어와 새로운 言語의 堆積 속에서
苦惱하는 半世紀를 지내면서 그
무엇인가 손에 닿지 않는 理想鄉을
異國적인 것으로 그리며, 現實에 뿌
리 박지 못하는 부른 꿈을 먼나라로
먼나라로만 날려왔든 것입니다. 이
게 우리 看護敎育理念은 그 時代的
인 健康概念의 變化와 그에 따른 看護
의 概念이나 그 社會的인 現實과
分離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 自身
과 우리가 處해 있는 社會的인 實情
을 바로 認識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
습니다.

우리가 處해있는 實情, 이것은 國
內的으로 아직도 80萬 내지 100萬을
데아리는 結核患者와 해마다 가지지
않는 急慢性 傳染病 蔓延의 危險. 아
직도 國民의 80~90%를 차지하리라
는 各種의 寄生蟲病들, 28.8이라는
엄청난 人口自然增加率과 함께 脫皮
하지 못하는 貧困과 망대한 計劃은
세웠어도 잘 訓練된 指導者의 缺乏
을 痛感하는 家族計劃事業, 都市를
中心으로 하여 날로 증가되는 各種
神經症狀들과 아직도 兩班을 讚美하
는 舊世代的인 價値觀과 混線을 자
아내는 새로운 價値觀의 創造. 이러
한 엇갈림 속에 主體의 慾求를 度外
視한 無條件 自己犧牲과 奉仕를 強
要당하는 큰 精神的 負擔等을 들 수
있을 것이며 國外的으로 先進國에 있
어서의 豫防할 수 있는 모든 疾病에
對한 基本的인 憂慮를 벗어나서 健

康의 質的向上을 當面課題로 하고 있
다는 點이나, 責任있는 원승이가 자
己 責任을 감당하지 못하였을 때 軀
가 破裂되어 죽었으나, 責任을 갖지
않은 元승이는 같은 苦痛(electric
shook)을 겪고도 臂에 아무런 損傷
이 없는채로 있었다는 代表 元승이
實驗(executive monkey test) 結
果나 vital sign을 어느 熟練된 看護
員보다도 몇 배 더 正確하게 測定
하는 醫療器具等을 통한 未來의 看護
事業의 展望과 趨移에 對한 挑戰
을 들어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現實
的인 問題들을 좀 더 正確히 認識하
고 現實情을 直觀하는 敎育的인 理念을
바탕으로 敎育을 通하여 具現되어야
할 人間像, 即 그 性格, 態度, 知識
技術 및 키워야 할 여러가지 能力들
을 具體的인 目標로 삼으므로서만
이러한 時代的要求에 呼應할수 있을
資質을 涵養함과 同時에 被敎育者의
個人的 慾求와도 併行된 進취적이고
意欲的인 自己發展에 拍車를 加할수
있을 것입니다.

敎育內容에 있어서는 現行敎科課
程이나 實地 敎授內容에서 엇보이는
것으로 미루어보면 내세운 敎育理念
이나 敎育目的 或은 現代的 看護理
念과 상당한 距離感을 느끼게 한다고
봅니다. 全人看護를 看護의 理念으
로 한다면 먼저 全人敎育이 先行되
어야겠고 患者의 個別的인 慾求에
呼應할 수 있으려면 自身の 趣味와
個性이 挫折되지 않고 發展할 수 있

있든 敎育이 밑받침이 되어야겠으며 患者의 苦痛을 理解하려면 먼저 複雜한 人間의 生態를 배워서 깨우쳐야 하며 人類에 奉仕할 것을 要求한다면 먼저 生命의 尊嚴性과 社會的인 過程을 理解하고 人間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야 하겠읍니다.

眞情한 意味에 있어서의 專門業者 卽 敎育者은 人間의 形成과 專門家의 養成을 同時에 願한다면 우리 的 敎科課程은 좀더 融通性 있게 짜여지고 選擇되어야겠으며 一般敎養課程과 專攻課程이 함께 어떤 均衡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敎養課程을 通하여 人間과 自然과 國家와 社會와 文化的 遺産에 對한 眞은 理解와 事物에 對한 批判的인 且 自律的인 思考能力 및 예민한 洞察力을 가르쳐 새로운 아이디어를 發見하며 他人의 經驗을 함께 나눌 수 있는 幅있는 人格의 涵養 및 被敎育者의 內的資源을 限것 啓發育成 하려한 人間의 部分的인 아닌 全體的인 成長과 人格的인 發展을 도모하므로써 專門業者의 素養을 길러야 할 것이며 專門分野에 있어서는 專門的인 知識과 技術을 研磨할 뿐 아니라 特定한 地域社會의 要求에 呼應하며 나아가서는 世紀的인 부름에도 뒤지지 않게 마련된 敎育內容이어야 하겠읍니다. 現在 大學課程에서는 各급 그 大學에서 定한 一定한 必須敎養科目을 履修하고 있어 많은 期待를 걸고 있으나 大部分의 경우 이러한 科

目들은 모두 低級學年에서만 授業하고 있다는 點과 좀더 많은 選擇敎養이 마련되어야겠다는 點에서 좀더 研究되어야 할 課題가 되어있으며 一般看護學校에 있어서도 前보다 많은 非專門的인 科目이 履修되고 있다는 點이 엿보이나 看護員이 담당하는 任務의 複雜性과 多角的인 對人關係에 비추어 眞情한 專門業者를 育成한다는 點에 많은 未洽한 點이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韓國에 있어서의 看護敎育은 世界的인 趨勢에도 意欲的인 參與가 있어야겠지만 어디까지나 韓國的인 郷土色을 지녀야겠고 韓國的인 現實에 가장 크게 貢獻할 수 있어야겠기에 우리 自身과 우리 주변에서 더 많은 敎育資材를 발달하여야겠으며 우리 社會의 구석구석에서 看護員이 貢獻할 터전을 마련해야겠읍니다.

參 考 文 獻

1. 保社部 統計年報.)
2. 李熙永: 家族計劃과 醫師, 最新醫學 5, 9, 1962.)
3. Tosielle, Frank; A Liberal education for nursing students, Nursing Outlook. 13;3;64 (March 1965.)
4. Radle, Margaret L.; What does the teacher expect of a school nurse? Nursing Outlook 13;2;33 Feb.
5. George, Joyce Holmes; Electronic monitoring of vital signs, American journal of nursing. 65;2;68 Feb.)
6. Brown Amy Frances; Curriculum development, saunders. 1960.)
7. 學生指導研究所; 서울大生心理白書, 大學新聞 第596號.)
8. 其他 市內看護學校 및 看護學校要覽.)